



기획특집

UCC, 베트남 다문화 가족을 위한 현지 봉사활동

이슈 & 사회 01

종합상황실 신속 구축, 메르스 감염자 '0'

현장 24시

네트워크부문 현장기술지원단 무선엑세스망 기술지원1팀 이성욱 조합원

KTTU NO.1

통신 130년, KT가 GiGAtopia를 열어나간다



노사관계의 선도적 모델 상생과 협력의 가치추구 시대로!

여름철 인기 휴양지인 보라카이나 세부의 바닷가에서는
소금쟁이 모습을 닮은 필리핀 전통 배를 볼 수 있습니다.
'방카'라는 이름의 이 배는 양옆에 대나무 바를 길게 연결해
높은 파도에도 배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좁고 긴 배가 높은 파도를 이기는 힘은 바로 '균형'에 있었습니다.
기업과 사회, 노사 간 균형은 거센 파도를 헤쳐 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KT노동조합은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UCC를 주도하며
베트남 봉사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UCC 글로벌봉사단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만이 노사 간 발전과 함께
사회적 공존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KT노동조합의 나눔 운동이 기업가치 창출과 노사관계의 선도적 모델로서
노사화합은 물론 노동계의 새로운 변화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더욱 확장된 책임 실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여
국민기업을 넘어 세계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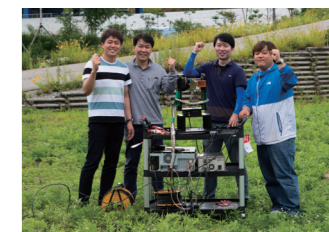


C o n t e n t s

vol. 20



KTTU NEWS	04	KTTU NEWS
기획특집	08	UCC, 베트남 다문화 가족을 위한 현지 봉사활동
도전, 60일	12	600km 라이딩에 도전하는 이윤준 조합원
이슈 & 사회 01	14	종합상황실 신속 구축 메르스 감염자 '0'
이슈 & 사회 02	16	통신요금인가제, 단통법에 이은 또 다른 논쟁
현장 24시	18	현장기술지원단 무선엑세스망 기술지원1팀 이성욱 조합원
KTTU 카툰	22	휴직의 종류와 이해
KTTU 클로즈업 01	24	통신 130년, kt가 GiGAtopia를 열어나간다
KTTU 클로즈업 02	26	다운플랜 상조서비스 이용후기
KTTU 클로즈업 03	28	서울동부유선운용센터 화성송신소 'olleh 오토캠핑장'
컬덕트	30	플라로이드, 새로운 카메라 혁신을 이루다
길따라 멋따라	32	시간 빈곤자를 위한 타임푸어 솔루션
독자후기 및 퀴즈	34	조합원 독자 후기 및 퀴즈



KT TRADE UNION

News

새희망의 디딤돌

2015년 UCC 오작교 참가 안내 '미혼남녀 만남주선' 이벤트 추진

참여방법: 신청서 작성후 8월 25일(화)까지 ucc@kt.com으로 신청



오작교는 우리 KT를 포함하여 UCC 회원사 미혼남녀 간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사공동 프로젝트로써 작년에만 총 80회 결혼적령기 미혼남녀 임직원의 건전한 만남을 주선하였다. 올해에도 다양한 UCC 회원사 임직원과의 지역단체미팅과 Happy 봉사미팅 등 알차고 즐거운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오작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사는 KT, KT그룹사와 11개 UCC 회원사 및 고용노동부 등이 함께 하고 있다.

2015년 특수 건강검진 시행

단체협약 제72조(건강검진) 관련 특수 건강검진 시행

- 검진대상 : 선로(CM)근무자로 밀폐공간(통신맨홀) 작업자 및 야간 교대근무자
- 유해인자 :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야간(교대)근무
- 검진항목 : 직업력 및 유해인자 노출력, 호흡기, 혈액, 기타 문진 등
- 시행방법 : 지역본부에서 전문기관 선정 후 계약 추진
- 검진기관 :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
- 검진일정 : 8월 4일(화)~9월 30일(수)
- 예산계정 : 건강진단비

'찾아가는 노사협의회' 열려

아파트지킴이 영업활동비 지원 등 논의

KT노사는 7월 29일(수) 광화문 사옥에서 수요 노사협의회를 열고 재무실과 C부문의 안건을 협의했다.

이어 'Biz 직책자 Basic Rule 이행 철저 및 고객관리역할 강화'에 대한 안건이 논의됐다. 이는 '존경받는 1등 K분과' 회의 시, 노동조합이 건의한 사항으로 관리업무 위주에서 수행·지원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역시 노동조합 건의사항 중 하나인 '아파트지킴이 영업활동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B/S 기반의

포상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노동조합은 '찾아가는 노사협의'를 통해 그 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 해결과 조합원 사기 진작을 위해 계속 힘쓸 방침이다.

2015 하반기 초등자녀 대상 화상영어 교육 지원대상 선정

초등학교 5·6학년 자녀 화상 영어교육 시행



KT노사는 7월 24일(금), 본사 KBN 방송실에서 조합원 초등자녀 화상영어 교육 프로그램 대상자 160명을 선정했다. 이번 추첨에는 노사 각 2명씩, 노동조합 한호섭 사업지원실장, 차완규 정책실장과 회사측 이원준 인사기획담당, 김무성 경영지원담당 상무가 참여했으며, 13개 기관별 박스추첨을 통해 진행했다.

초등자녀 화상영어 교육프로그램은 조합원 자녀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것이며, 교육지원 대상은 초등 5, 6학년 자녀를 둔 조합원과 직원이다. 2015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초등학생 자녀 화상영어 교육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지속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총 160명의 학생은 오는 8월 17일부터 2016년 2월 16일까지 6개월간 화상 영어교육이 진행되며, 지원하는 교육 콘텐츠는 Rhythm & Beat 교재 및 원어민 화상영어, Writing 첨삭(주 1회), Junior TOEIC Test(격월)가 제공된다.

※ 선정자(5,6학년 각 80명) 명단과 예비 후보자 명단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 바랍니다.

2015년 7월 성과급 지급안내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G직, A직,

- C직 및 Sales직 (청원경찰 포함)
- 지급기준
 - 지급산식 : 월기준급 x 지급률
 - 지급률
 - G직 : 100%
 - A직 : 80%
 - C직 및 Sales직은 평균 지급률(62.5%)에 전월 실적을 반영하여 지급
- 지급일 : 7월 24일(금)
-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사상생협의회...분과위원회별 운영계획 논의

UCC 글로벌 봉사활동, 현장 조합원 격려 위한 특식제공 등



KT노사는 7월 16일(목)에 열린 상생협의회 회의에서 분과위원회별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4시에 열린 노사문화 선진화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부산, 경남, 대구 등 지방은행노동조합연합회 및 6개 지방은행과의 MOU 후속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경남은행 가판 실적 분석 및 추진 프로세스 정례화, 타 지방은행 대상 판매활동 시행 등 계획을 논의했다.

노사는 지방은행과의 MOU를 통해 조합원 정보통신 등 복지분야에 대한 상호협력과 UCC 동참 등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어 2015년 하반기 UCC·노사랑 추진계획에는 글로벌 봉사활동의 성공적인 추진과 UN과 연계한 사업강화, 노사랑 나눔목표 재설정 및 달성 독려, 지역사회 노사랑 계획 이행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 및 결과는 상생협의회 노사문화선진화 분과위원회를 통해 수시

보고된다. 오후 5시에 열린 존경받는 1등 KT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노사는 그간 진행했던 식당위생점검 진행결과 및 벌칙 부여(안) 등의 경과사항을 공유했다.

이어 삼복 혹서기에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현장 조합원 격려 차원에서 노사가 중복과 말복에 삼계탕 등을 제공하는 삼복 혹서기 직원 특식 제공, Biz 영업부서 팀장 영업활동 가능 수행 검토 결과, 고객관리 영업대표 대상 모바일 영업도구 제공 방안 등이 토론 안건으로 논의됐다. 안건과 관련한 지급계획과 현장적용 등은 7월~9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7월 18일 베트남으로 출발한 UCC (Union Corporate Committee) 글로벌 봉사단은 현지에서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족 화상상봉, 의료봉사, 빈곤가정 지원, 현지가족 시내여행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UCC, KT의 국내외 홍보와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기획된 베트남 화상상봉 봉사활동은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4년째 지속하고 있다.

시범운영 지역전담 책임제 현장 실태조사 실시

현장 문제점 발굴 및 개선과 의견수렴 목적



KT노사는 고객센터직 지역전담 책임제(우리집 전담기사) 시범 운영에 따른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7월 6일(월)부터 7월 9일(목) 까지 노사합동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노사는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11개 본부 76개 지사/지점에서 시범 운영 중인 고객센터직 지역전담 책임제의 현장 문제점(허들) 발굴과 개선방안 여부를 모색할 방침이다.

3개 권역(3개 조)을 각각 조합간부와 CS운영담

당이 조를 이루어 실태를 조사하며 지역본부별 1개 지사/지점은 지역본부의 CS부장 및 관련 팀장이 참석한다. 조사팀이 방문한 지사/지점의 고객센터직은 현장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출동 전/후, 점심시간 활용)에서 전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노사합동 실태조사팀은 향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객센터직의 지역전담 책임제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현장 문제점(허들)을 개선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2015년 하계 조합원 및 가족 안과/치과 의료행사 추진

조합원과 그 가족의 복지후생사업의 일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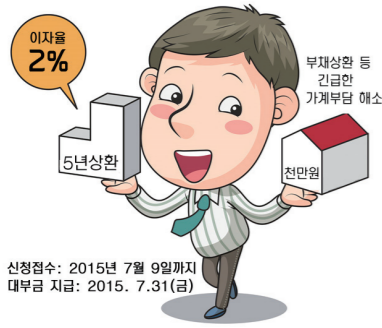


KT노동조합에서는 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치과, 안과 전문병원을 지정하여 조합원(가족 포함)의 복지후생사업을 시행했다.

- 접수기간 : 7월 6일(월) ~ 7월 31일(금) 18시 까지
- 치료기간 : 7월 13일(월) ~ 2015년 8월 31일(월)
- 진료대상 : K직원(계약직 포함) 및 가족
- 행사과목 및 장소
 - 치과 : 임플란트, 교정, 보철 전문병원 - 명동, 강남, 강서, 부평, 구로, 일산, 미아, 교대, 주안, 분당
 - 안과 : 시력교정수술 전문병원 (강남, 부산, 인천)
-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하반기 긴급가계자금대부 시행

재직 중인 임직원 대상, 부채상환 등 긴급한 가계부담 해소



KT노사는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채상환 등 긴급한 가계부담 해소를 위해 긴급가계자금대부제도를 시행했다.

- 제도내용
 - 대부규모 : 1인 최대 1천만원 한도 (최소 2백만원)
 - 대부조건 : 이자율 2%, 5년상환
 - 운영방식 : 기관대부자선정위원회 구성
 - 구성단위 별 현원기준 대부금액 배정
 - 신청 및 선정 프로세스
 - ① 신청접수 : 반기 1회 (상반기 1월, 하반기 7월)
 - ※ 신청서 작성후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선정위원회로 제출
 - ② 대부자 선정 : 대부자 선정위원회별 대부자 및 금액결정
 - ③ 선정결과 통보
 - 2015년 하반기 시행일정
 - 기관별 대부 희망자 접수 : ~ 7월 9일
 - 대부자 선정 및 대부금액 확정결과 통보 : ~ 7월 13일)
 - 선정자 서류 출력/ 작성 후 제출 : 7월 17일
 - 채권확보(보증보험 이용자 한) : ~ 7월 25일
 - 대부금 지급 : 7월 31일
 - ※ 신청서 양식 및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CC,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격려 방문

메르스 퇴치 위한 의료진 노고에 감사와 격려 전달



기업 간 노사협의체 (UCC : Union Corporate Committee) 회원사는 6월 29일(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위원장 임춘미, 병원장 이철희)을 방문해 당 병원의 메르스 대응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행사는 KT노동조합의 정윤모 위원장을 비롯해 장애인고용공단 노동조합의 송춘섭 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의 김진만 위원장이 UCC 회원사이자 메르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UCC 회원사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사를 대표하여 참석한 임춘미 위원장과 이철희 병원장에게 UCC 회원사의 격려금을 전달하고 메르스 퇴치를 위한 병원과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뜨거운 감사를 표했다.

UCC 회원사를 대표하여 정윤모 위원장은 격려 인사를 통해 "메르스 퇴치의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메르스가 조금씩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며, "UCC 회원사는 앞으로도 같은 회원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중요 이슈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 임춘미 위원장은 "UCC 회원사 노조위원장단의 격려방문에 감사 드린다"고 인사한 뒤 UCC와의 연대를 통해 노사의 사회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조합원들의 발전적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5년 변동 복지포인트 지급 및 온누리상품권 대체

침체된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

KT노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기업으로서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변동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하여 합의했다.

- 변동 복지포인트 지급
 - 지급일자 : 7월 6일(월)
 - 대상 : 상무보 이하 전 직원 (지급일 기준 재직자)
 - 온누리상품권 대체 지급 : 2015년도 희망자에 한함
 - 대상 : 변동 복지포인트 50만pt 이상을 받는 직원
 - 대체 지급내용
 - 복지포인트 50만pt → 온누리상품권 55만원으로 대체 (10% 가산)
 - 미신청자 또는 대체후 잔여 포인트는 복지포인트로 지급
 - ※ 온누리상품권 지급 시 종이/전자상품권 선택가능
 - 추진일정
 - 온누리상품권 대체 희망자 조사일정 : ~ 6월 30일(화)
 - 온누리상품권 기관 배송 : 7월 9일(목) ~
 -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차 퇴직연금 전환 시행

2015년 확정기여형(DC) 및 혼합형(DC+DB) 퇴직연금제 전환시행에 따른 사항

- 대상 : 전체 임직원 중 DB형 또는 혼합형 가입자 (단, 1년미만 재직자 제외) (연대보증을 통해 회사(기금) 대부금을 받은 조합원은 보증보험 대체 또는 전액 상환시 Dc형 전환 및 중도인출 가능)
- ※ 2015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퇴직

- 급여 감소 방지를 위해 전환 필수
- 가입유형 확인 : ERP → HR → 개인업무 → 급여 → 퇴직금 → 퇴직연금관리
- 전환유형 : 확정기여형(DC), 혼합형(DC+DB)
- 신청절차 : 본인이 직접 희망 금융기관에 제출서류 준비후 신청
- 신청기간 : 7월 1일~7월 10일
- 전환인원 및 금액확정 : 7월 17일
- DC전환 기준일 : 6월 30일
- 전환일(DC계좌 입금일) : 7월 29일
- 기타 참고사항
 - 법정중도인출 사유자 추가 전환신청 주기 : 연 2회 (매년 4월, 10월)
 - DC형 및 혼합형 전환신청 주기 : 연 2회 (매년 1월, 7월)
- ※ 퇴직연금 전환 안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동계 유니폼 지급기준 안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대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동계 유니폼 지급하기로 합의

- 진행경과
 - 유니폼 디자인 통합 및 지급기준 개선에 대한 노사간 협의 : 3월 25일
 - 온라인 설문조사 시행 : 3월 26일~4월 1일
 - 현장 실태조사 : 4월 6일~4월 10일
 - 현장 품평회 (현장전시회 16회, 온라인 설문조사) 시행 : 5월 6일~5월 13일
 - 최종 디자인 선정 : 5월 15일
 - 디자인, 기능개선 협의 : 5월 18일~6월 3일
 - 지급기준 노사합의 : 6월 23일
- ※ 지급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Q&A 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사문화선진화분과 정기 회의

지방본부와 지방은행 노동조합 간 KT상품 판매 활동 지속 추진키로...



KT노사는 6월 18일(목) 분당 본사사옥 16층 회의실에서 노사상생협의회 산하 분과인 "노사문화 선진화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의 회사가치창출 활동 등의 프로그램 추진 경과보고 및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노사는 먼저 노동조합의 회사가치 창출활동과 관련하여 대구지방본부 노사가 대구은행을 대상으로 KT 상품을 수주 지원한 사례를 소개하는 등 지방은행 노동조합과의 MOU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MOU 체결사항 이행에 대한 KT노동조합 지방본부와 지방은행 노동조합 협의로 향후 KT 상품판매 활동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KT노사는 더불어 지방은행 노동조합에 UCC 활동 동참을 유도하여 양시간 수시로 친밀감 도모 및 공동 노사랑 활동을 확대·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계속해서 노사는 노사공동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실적과 관련하여 △임직원 8시간 자율봉사제 복무시스템 오픈 및 전사시행 △지역사회 노사랑 나눔운동 △노사랑 2015년 중등자녀 글로벌 어학연수 대상자 선정 및 발표의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UCC 글로벌 봉사활동, UCC 체육대회 정기 시행을 통해 UCC 회원사 간 결속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한편, 노사간 소통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존 추진 프로그램 외에도 경영설명회, 노사 Culture Day, 만사소통 프로그램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윤모 IT사무서비스노련 위원장 재선

찬성 106표, 반대 38표로 당선
지역본부 설립 등 3대 핵심사업 추진 계획 밝혀



정윤모(KT노동조합 위원장)후보가 제12대 전국 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하 IT사무서비스노련) 위원장에 재선했다.

6월 25일 오후 2시 서울근로자복지회관 5층에서 IT사무서비스노련이 정기대의원대회를 갖고 연맹 위원장 선거를 진행했고, 대의원 167명 중 144명이 참석했다.

IT사무서비스노련은 후보자 등록 당시 윤세홍 SK브로드밴드노조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하며 정윤모 위원장과 함께 IT사무서비스노련 최초의 연맹위원장 경선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8일 윤세홍 위원장이 후보직 사퇴의사를 밝혔고, 정윤모 위원장이 단독 입후보함에 따라 선거는 찬반투표로 진행됐다. 그리고 144명 중 찬성 106명, 반대 38표로 정윤모 위원장의 재선이 결정됐다.

정윤모 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밝히며 "규약과 규정을 정립하고, 연맹이 울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IT사무서비스노련의 입지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IT사무서비스노련은 2015년 사업별 주요 계획 중 3대 핵심사업으로 ▲ICT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추진 ▲국제회의의 참석 및 국제교류 추진 ▲IT연맹 지역본부 결성 및 설립 추진 안건을 가결시켰다. 지역본부 설립은 지역활동이 가능한 호남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경북지역본부(가칭) 등 거점지역 3곳부터 우선 실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꿈에 그리던 베트남 친정 왔어요” 임자도 며느리의 특별한 여행



UCC, 4회째 베트남 다문화 가족 위한
현지 봉사활동 펼쳐

“아버지 손녀딸들이예요”

한국으로 시집 온지 8년 만에야 첫 친정
나들이를 온 ‘후안 티 항엠’씨가 부모님
에게 어린 자녀를 소개했다.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던 아버지 후양 반 마잉씨도 손
녀딸들의 얼굴을 연신 쓰다듬다가 이내
활짝 웃었다.

“내 새끼들을 이제서야 만나는구나”

전라남도의 섬 임자도에서 남편과 두 딸
을 데리고 하노이로 날아온 후엔 티 항엠
씨는 “소식을 듣고 일주일간 잠을 설쳤
다”며 “부모님이 두 손녀딸의 재롱을 눈
앞에서 보시게 된 것이 꿈만 같다”고 눈

시울을 적셨다. 비록 며칠간의 짧은 만남이지만 후안 티 항엠 씨와 가족들에게는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된 베트남행. 이는 기업 간 노사협의체 UCC(Union Corporate Committee)가 KT의 기술을 활용해 지난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다문화가족을 위한 현지 봉사활동을 펼친 데 따른 것이다. UCC는 이번 행사를 통해 후안 티 항엠씨 가족뿐 아니라 전국에서 선정된 41가족의 화상 만남을 KT 지방본부 내 화상시스템과 베트남 현지 상봉장과 연결하여 성사시켰다. 올해로 4회를 맞은 한국-베트남 화상상봉 행사는 KT 베트남 하노이사무소를 거점으로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및 특별만찬, 의료봉사, 주거개선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빠듯하게 진행됐다. 지금까지 이렇게 화상 상봉을 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현지 가족은 무려 1200여 명에 달한다.

각 회원사의 특색을 살린 봉사협업

지역 사회의 노사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원사별로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기획해 실천하는 것은 선진적인 노사 문화를 선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올해 UCC의 봉사활동에는 다문화가족의 베트남 깜짝방문 및 화상상봉, IT나눔을 주도한 KT외에도 11개 기업이 동참하여 분당서울대병원의 의료봉사,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지 농촌 지역 빈곤 가정에 지원금 전달, SH공사와 장애인 고용공단의 한국 문화체험 등이 진행됐다. 또한 10여 명의 KT노사 장학생들도 각 분야별로 나뉘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현지가족에게 가장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이 분당서울대병원이 주축이 되어 임신 진료소를 구축, 현지 가족들의 건강을 돌본 의료봉사다. 봉사기간 내내 정세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백주영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통역을 통해 환자의 증상을 꼼꼼히 물어보고 약을 처방해주느라 분주했다. 향후 의료혜택이 절실한 오지를 찾아 봉사를 계속하고 싶다는 백 전문의는 ‘베트남에는 우리나라처럼 병원이 많지 않아 시골 분들은 진료를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



Union Corporate Committee

며 '작은 나눔에 기뻐하고 감사를 표하는 현지 가족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도 큰 동기부여를 얻는다'고 전했다.

베트남 언론, 뜨거운 취재 열기로

UCC 조명

반짝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봉사활동 덕에 베트남 현지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공산국가 특유의 통제와 까다로운 절차로 유명한 베트남 정부가 예년과 다르게 UCC 봉사단의 동선을 호의적으로 배려했을 뿐 아니라, 베트남 국영방송이 상봉장면을 취재하고 기자회견장에 35개사의 언론이 취재경쟁을 벌이는 등 현지 미디어의 관심이 예년보다 더욱 컸다.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하듯 베트남

최대 정보통신노동조합인 VNUICW의 응웬 쉘이 후에 부위원장은 UCC가 향후 VNUICW와 같이 봉사활동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타진하기도 했다. 응웬 쉘이 후에 부위원장은 KT노동조합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년 봉사활동을 펼쳐준 데 대해 베트남 국민을 대신해 감



사 드린다"고 전한 뒤 "UCC의 나눔철학에 공감하는 바가 크므로 VNUICW도 다문화가족을 돕는 일에 한 몫을 담당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KT노동조합과 VNUICW 등의 폭넓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베트남 VNUICW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추반빈 위원장은 봉사단이 24일(목)에 최한 작은 음악회에도 참석, 자리를 빛냈다. 화상상봉 자리에 각종 스마트기기를 비치해 IT나눔행사를 진행했던 김미화 IT서포터즈 봉사단원이 사회를 맡은 이날 음악회에서 추반빈 위원장은 "날로 증가하는 베트남-한국 가정의 안녕과 더욱 발전해가는 양국의 우정을 위해 참으로 기쁘고 보람된 날이라고 생각한다"며 추후 봉사단의 활동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에는 KT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학생들도 대거 참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부평여자고등학교 1학년 전예지 학생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단원들의 작은 손길로 현지의 어르신들과 가족에게 기쁨을 드리게 되어 가슴 뿌듯했다"고 밝힌 뒤 "진로와 목표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아주 뜻 깊은 체험이 되었다"며 활짝 웃었다.

"한-베 민간교류의 폭을 넓히게 될 것" UCC 위원장단, 하노이 격려방문

한편 깜짝상봉 일정에 맞춰 정운모 KT노동조합위원장, 신현옥 KT경영지원실장, 임춘미 분당서울대학교병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UCC 회원사 관계자들이 베트남 KT 하노이 사무소의 상봉장 현장을 찾아 가족을 접견하고 봉사단을 격려했다. 정운모 위원장은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다"고 인사한 뒤, "직접 와서 그리운 가족이 서로 포용하며 반가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고 피력했



다. 정 위원장은 이어 "글로벌 봉사활동으로 베트남에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내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기를 바란다"며 "11개 기업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UCC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향후에도 KT노사와 UCC는 봉사활동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UCC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병행하여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의 빠른 한국 적응을 돕는 한편, 한국 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로 베트남·한국 민간교류의 폭을 넓히게 될 전망이다.



INTERVIEW



최장복 UCC 봉사단장

UCC는 한국 최초로 기업과 노사의 벽을 허문 협의체 기구다. 모든 회원사는 결혼이주 여성들이 한국에서 겪는 여러 난제에 대한,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를 해보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UCC 다문화가족 화상상봉 봉사가 그 시작이다. 이는 날로 증가하는 한국-베트남 가정, 즉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적응을 돕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활동을 매년 시행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피붙이들이 화상으로나마 서로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것을 보고 더욱 큰 책임감과 동기부여를 얻고 있다. UCC 회원사도 수익보다는 나눔 자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비슷한 성향의 공기업 위주로 구성됐으며 올 하반기에는 한국수자원공사, 7개 지방은행도 가입할 예정이다. 전국 네트워크가 가능하여 나눔활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노사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눔'이 노사 교류의 장(場)이 되는 등 노사 간의 분위기를 바꾸는 순기능도 갖게 됐다. 처음엔 반짝 이벤트로 끝내겠지 생각했던 베트남 사람들도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적극 협조해 주고 있다. UCC 관계자들의 열정과 베트남 현지의 여러 관계자들께서 보여주시는 관심과 지지 덕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UCC는 두 나라가 더욱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하는 상생의 관계가 되길 바라며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

행복한 나를 만들기 위한 체력 키우기

600km 라이딩에 도전하는 이윤준 조합원

무더위가 계속되고 가만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다. 쉽게 지치고 체력은 바닥을 향하고 있다.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내 운동을 하기는 별을 따는 일만큼 어려워 보인다. 오늘의 도전자는 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자전거로 다니는 라이더를 보며, 운동도 하고 출퇴근 시간도 행복해 질 수 있는 1석 3조의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도전을 시작했다.



- 도전자 : 이윤준 조합원 (마케팅부문 기업솔루션본부 IMO운동센터 기업솔루션1팀)
- 도전과제 : 600km 라이딩
- 도전일시 : 2월 14일 ~ 현재 진행 중

혜화 IP운동센터, 우면동 기술지원본부 등에서 서버, 네트워크 운용 및 기술지원 업무를 했고 현재는 비즈메카 기업 SAAS솔루션 운용 및 긴급전화(119,112) 발신자 위치정보 서비스 운용업무를 하는 이윤준 조합원. IDC에서 근무하다 보니 대부분 시간을 서버실에서, 업무 특성상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래서일까. 출퇴근 할 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낱 정도 체력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더구나 야간작업이나 밤샘 근무라도 하게 되면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에 무엇을 하는게 좋을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근무 시간을 제외하고 출근 전후로 따로 시간을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사는 곳도 입주한지 얼마 안 된 아파트라 버스노선이 많지 않아 출퇴근 시간엔 늘 만원이라서 출퇴근만으로도 지쳤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들이 지내고 있다. 우면동 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당IDC까지는 약 20km 정도. 집에서 나오면 양재천과 탄천길로만 다닐 수 있어 위험하지 않게 라이딩 할 수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도 절약될 것 같았다. 움직이기도 힘든 만원 버스로 한 시간씩 출퇴근하는 것보다 시원하게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아침저녁의 한 시간이면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이고 떨어진 체력도 키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에도 가입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이후로 자전거를 거의 타보지 않았으니 초보도 이런 초보가 없다. 결심을 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

동료들의 응원으로 페달을 밟다

이윤준 조합원이 사는 곳은 서초 우면 보금자리지구. 아내와

했다. 함께 일하는 동료 중에 자전거 마니아가 있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선배님 중에도 전문가가 있어 다양한 도움을 받았다. 우선 라이딩을 위한 자전거 구매부터 시작. 자기 체형에 맞는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길에 적합한 자전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았다. 자전거의 종류도 수십 가지. 브랜드는 셀 수도 없이 많았고 가격도 천차만별. 동료들과 한 달 동안 자전거와 안전장비에 대해 알아보고 드디어 올해 초 구매했다.

도전 성공 후 사내동호회까지

도전을 시작하고 동료들의 응원 속에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있다.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역시 아내다. 자전거로 출퇴근을 시작하고 기분 좋게 파이팅을 해주고 있다. 처음에는 힘도 들고 땀에 흠뻑 젖어 업무 전에 다시 씻고 준비하는 것이 번거로웠다. 회식이 있거나 야근으로 퇴근이 늦어지면 늦잠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잦았다. 그래도 알람을 맞추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난다. 아직까진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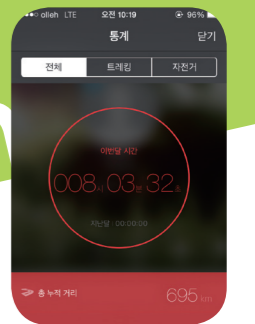
“자전거로 출퇴근을 시작하고 몸과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두 시간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강변을 따라 페달을 밟으니 체력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업무에 활력도 생기기 시작했죠.”

저녁 식사 후 집에서 과천 경마공원까지 왕복 5km 정도 달리기도 시작했다. 자전거와 달리기를 해서일까? 도전을 시작하고 남자의 힘은 허벅지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다리에 근육이 붙기 시작했다. 몸이 활력을 찾기 시작하니 업무효율도 예전과는 다르게 좋아졌다.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의 응원 속에 성공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확신도 생겼다. 이번 도전을 계기로 라이딩이 익숙해지면 사내 동호회를 결성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자전거 이야기가 오가며 동료들과도 더 돈독해지고 있다.

이윤준 조합원은 이번 도전이 끝나도 출퇴근 라이딩은 계속할 생각이다. 자신의 작은 생각이 스스로는 물론이고 주변까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윤준 조합원이 동료들께 추천합니다.

운동하고 싶는데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시간을 내기 쉽지 않은 조합원, 야근이나 교대근무 등으로 생활의 활력이 떨어져 있는 조합원, 출근 시간에 만원 버스, 만원 지하철에 시달려 막상 업무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 버리는 조합원. 우면사육이나 분당사육같이 자전거 도로변에 근무지를 갖고 계신 조합원들, 이제 자전거 출퇴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도전 60일! 신청방법

- 소속 및 도전과제를 기재 후 이메일 또는 전화로 신청
- KT노동조합 정책실 편집국장 김민수 (mabin@kt.com, 031-727-2836)
- ※ 참신한 모든 도전과제 신청 가능
- ※ 성공 시 10만원 상당 상품권 제공

ISSUE & SOCIETY 01

종합상황실 신속 구축 메르스 감염자 '0'



MERS-CoV

메르스 사태 이후 각종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에는 평소 급성전염병에 대비한 사전 태세에 많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KT는 메르스가 발병하자 그룹 내 안전종합상황실을 즉각 설치하고 24시간 가동함으로써 조합원은 물론 고객들까지 단 한 명의 감염자가 생기지 않았다. KT의 이러한 사례는 전염병에 대비한 기업의 올바른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발각 뒤집은 전염병 패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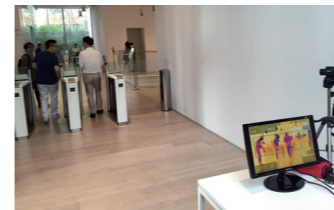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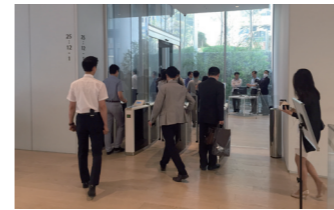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5월, 정부가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을 폐쇄한 이후 지자체에서도 감염자가 지나간 경로를 공개하는 등 추가 전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대처에 가장 중요한 단계인 초기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20세기 두 번째 전염병 패닉을 맞이해야 했다.

물론 전염병을 막아야 하는 책임이 관련 기관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정부와 의료기관,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 기업도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 특히 다수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일을 하는 사업장 혹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하는 기업의 경우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매일 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던 지난 6월, 각 기업에서는 사업장을 출입할 때 손 소독제와 열감지 카메라를 비치하고, 감염방지 요령이나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처방법이 담긴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노사 화합과 신속한 초동조치로

여러 기업과 함께 KT 역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KT는 지난 6월 1일부터 그룹 내 컨트롤 타워를 전담하는 안전종합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가동시킴으로써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성공적인 역할을 해냈다. 안전 종합상황실은 '메르스의 효율적 대응으로 경영연속성을 유지한다'는 목표 아래 상황반장과 총괄반을 필두로 상황반, 대응반, 홍보반, 지원반 등 4개의 비상조직으로 구성됐다. 현장에서의 초동조치를 강화하고 체계적 대응을 위해 15개 부문 Staff과 11개 지역고객본부, 6개 지역네트워크운용본부를 묶어 33개의 전체 그룹사별 상황실과 함께 유기적 상황대처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안전종합상황실은 KT 전체 그룹사를 포함해 매일 3회 이상의 정기보고를 기본으로 비상시 임직원들의 행동요령 및 현장 대응 매뉴얼을 전파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개인위생 등 5가지 행동요령을 안내문과 감염 의심자와 접촉했을 때 신속한 격리와 보고, 방역 등의 요령이 담긴 매뉴얼을 전사 게시판, 구내 방송 등을 통해 조기에 공지함으로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수행한 것이다.

안전종합상황실이 설치된 후 사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단체활동도 무기한 중단됐다. 연수원 집합교육과 야구장 단체 응원이 취소되었으며, 수도권 4개 지역 어린이집 역시 휴업조치를 하고 휴업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병행하게 해 업무차질을 줄였다.

집단생활을 하는 사육과 수련관, 연수원에서의 방역활동도 강화했다. KT는 전국 30개 사육에 열화상 카메라 30대를 운용해 고열 의심자를 파악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는데 열화상 카메라의 포착 혹은 또한 감기 증상을 보이는 조합원들을 관찰자로 분류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하루 3회씩 변동여부를 보고함으로써 감염 의심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펴왔다.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위한 KT의 노력은 고객맞이 접점에서 특히 빛을 발했다. 불특정 다수와 접촉해야 하는 전국의 고객센터에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비치하도록 해 고객들의 불안 심리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개통 AS팀을 비롯해 ITS, ktis, ktcs 등에는 개인위생용품을 지급해 외부에서의 고객과 접촉 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고객들로부터 메

르스 감염방지를 위한 KT의 진정어린 노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KT가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노동조합의 협조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직원 및 조합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노사 간의 공감 이 노사상생협의회를 거쳐 안전종합상황실 설치라는 신속한 공동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은 지난 6월 29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방문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장애인고용공단 노동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과 함께 UCC(Union Corporate Committee)회원사인 KT노동조합은 메르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찾아가 의료진을 격려했다.

제2의 메르스도 빈 틈 없이 막아낸다

메르스가 종식되면서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잠시 사라졌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를 무서운 전염병에 다시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이번 메르스 사태 이후 가장 우려되는 전염병은 홍콩독감이다. 홍콩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 발생한 59명의 홍콩독감 감염자 중 68%에 속하는 40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홍콩에서 홍콩독감으로 사망한 환자 수는 연초 겨울철 독감 사망자를 포함해 모두 5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독감의 사망자 수는 지난 2003년 홍콩은 물론 아시아 전역을 뒤흔든 전염병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로 인한 사망자 302명보다 1.8배나 많은 수치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근 국가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전염병 관리실태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지난 2003년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스를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던 반면, 사스보다 전염성이 약하고 치사율이 낮은 메르스에 대해선 속수무책으로 빈틈을 노출시킨 것이다. 하지만 초기대응에 실패한 정부와 달리 KT와 노동조합은 신속한 공조와 실천으로 안전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단 한 명의 메르스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ISSUE & SOCIETY 02

통신요금인가제, 단통법에 이은 또 다른 논쟁 신고제? 인가제? 결국 소비자 선택에 달렸다!

‘통신요금인가제’가 24년만에 폐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25일 이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통신시장 1위 사업자(유선 KT, 무선 SK텔레콤)의 경우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 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결국 소비자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정책이냐는 것이다. 아직 법안이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결과에 대한 선부른 예측이 확산되고 있다.

통신요금 부담 줄이기를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내용을 보면 ‘제4이통사업자 지원’과 ‘통신요금인가제의 폐지’를 골자로 한다. 이중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만 놓고 보면, 간단히 말해 이동사의 요금제를 시장 경쟁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고 후 15일 안에 보완을 요구하는 정도로만 개입하게 된다. 시장에 맡기면 경쟁에 의해 통신요금도 차츰 인하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 예측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결국 특정 이동사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에 앞서 현재의 통신요금 인가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와 통신사, 시민단체의 입장을 비교해본다.



갈길 먼 통신요금제의 엇갈린 주장

지난 1991년 도입된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통신요금을 새로 내놓을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간단히 유무선 통신시장의 1위 사업자가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유선시장에서는 KT, 무선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대상이다. 이중 무선시장의 비중이 커졌기에 시장지배력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SK텔레콤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인가제가 이동통신 3사의 요금담합에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인가제로 인해 시장 1위 기업이 요금제 심사를 받는 동안 2, 3위 기업들이 기다렸다가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한다는 것. 정부는 사실상 합법적 담합을 조장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고 한다. 인가제를 폐지해도 ‘제4이동통신사’를 진입시키면 자율 경쟁으로 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도 강조한다.

이같은 정부의 통신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 제4이통사의 출범은 이동사 모두 반대하고 있으나, 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인가를 받아야 하는 SK텔레콤은 신고제로의 전환에 찬성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특히 결합상품에 대해 인가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가제를 폐지하더라도 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인가제 폐지가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만 확대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제4이통사 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실제 요금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4이통사를 출현시켜도 결국 투자비용 부담 때문에 재벌기업만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동사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공성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장경제 체제의 틀 안에서 실제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 논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관련된 논란은 이용자의 통신요금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핵심 사안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제4이통사 선정이나 인가제 폐지를 떠나 인위적 요금인하를 하자는 목소리도 새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통신요금의 문제를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기본료 1만원 인하’ 등 인

위적 요금인하 압박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이용을 위해 수천 억 원을 지불하는 통신사에 인위적으로 요금을 1만원씩 내리라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며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한다.

정부 역시 인위적 요금인하 주장에 대해 부담스러운 눈치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정책 방향은 최고의 품질과 혁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통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용자 후생이 통신 정책의 목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일부의 요금인하에 대한 주장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기본 취지에서 벗어난 요구이기에 수긍하기 쉽진 않다. 또한 통신요금 신고제나, 인가제냐를 놓고 요금인하 논란을 벌이는 것도 실효성이 있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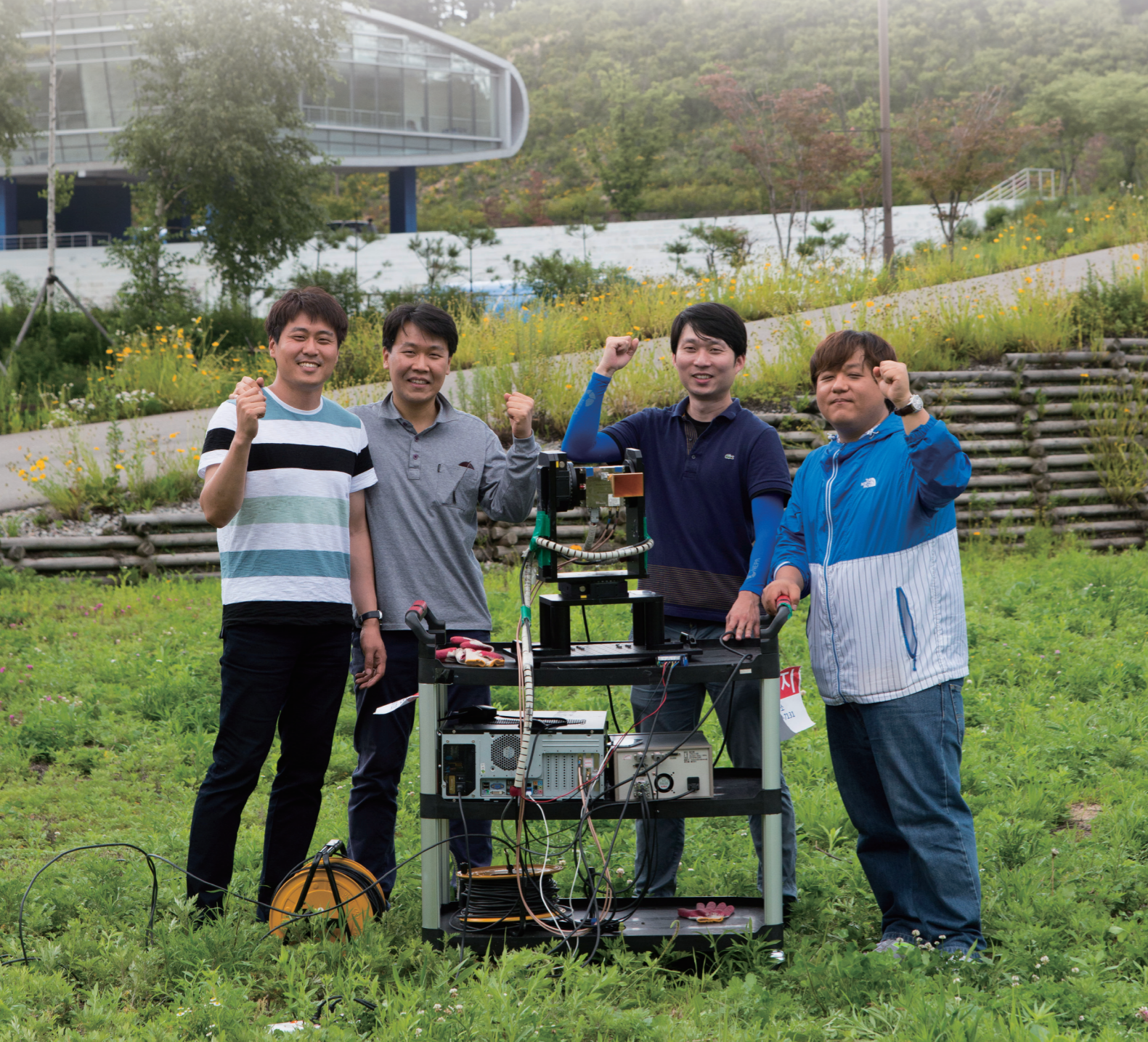
기존의 인가제에서도 1위나 2위, 3위 사업자 구분 없이 요금에 대한 경쟁은 있었다. 통신요금 인가제의 효과라기보다 기업의 적정한 이윤 추구라는 논리와 더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최근 미래부가 24년 만에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려는 것은 인가제를 폐지하면 통신3사의 단합으로 인한 요금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1위 사업자가 무선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여러 변형적 조치를 취해 미래부의 기대와 달리 요금이 외곡될 우려도 없지 않다. 오히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가 이동통신시장의 공공성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최근 KT에서는 국내 이동통신 업계에 경쟁을 불어넣고 만들어진 요금제 베끼기를 막기 위한 ‘배타적 사용권’ 도입을 제안했다.

KT 관계자는 “업계에 배타적 사용권이 도입된다면 요금제 베끼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차별화된 요금제로 번호 이동도 늘어날 것”이라며 “기업의 정당한 노력에 보상을 받기 위해 배타적 사용권 기간은 6개월이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통신요금 인가제나, 신고제냐를 두고 요금인하를 위한 정책으로 반영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결국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의 이윤 추구하고 경쟁, 소비자 이용 가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통신사 역시 무리하게 이윤만 추구하려고 하면 소비자의 외면에서 피하기 어렵다. 이용 서비스의 질과 가격 경쟁은 오롯이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세계 최초 5G 올림픽을 위해! KT가 뛰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준비 현장을 가다

이성욱 조합원 (네트워크부문 현장기술지원단 무선엑세스망 기술지원1팀)



왼쪽부터 이성욱 조합원, 김신환 조합원, 김성현(인프라연구소 5G TF) 조합원, 봉승용 조합원

KT가 공식 후원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약 900여 일을 앞두고 있다. 19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등 KT는 지금껏 굵직한 국제 행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 이제는 그 저력 위에 기가인프라와 5G 신기술을 이용, 한층 강력한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가지고 세계가 놀랄 정보통신기술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 매진한다. 70억 인구가 지켜 볼 5G 축제의 준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장을 엿보기 위해 평창으로 달려갔다.

5G 시범서비스를 위한 첫걸음

해발 800m.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인 대관령 알펜시아 스포츠파크에는 한여름이 무색하게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랜드마크처럼 우뚝 선 125m 길이의 스키점프대가 당장이라도 경기가 펼쳐질 듯 당당한 위용을 뽐냈고, 봅슬레이와 루지 경기가 펼쳐질 슬라이딩 센터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발길을 옮긴 곳은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들의 연습이 한창인 필드 한쪽에서 선수보다 바빠 움직이고 있는 이들이 보인다. 30kg에 육박하는 장비를 카트에 싣고 100m 길이의 릴을 풀고 감으며 곳곳을 누비고 있다. 인사를 건넨 틈도 없이 바쁜 이들은 바로 네트워크부문 현장기술지원단 무선엑세스망 기술지원1팀의 이성욱 조합원을 비롯해 같은 팀의 김신환, 봉승용 조합원 그리고, 융합기술원 인프라연구소 5G TF 김성현 조합원과 KAIST 인스티튜트에서 파견된 두 명이다.

그들의 현재 업무는 28GHz 대역 채널모델링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 계획과 실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이 작업이 시작된 게 올 7월 초, 8월 7일까지는 끝내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표다.

“앞으로 5G가 되면 고주파 대역을 쓸 건데, 그 대역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5GHz와 60GHz의 WIFI. 그 외에는 인공위성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게 5G 인거죠. 무선 주파수 자원이 없으니까 자원발굴이 쉬운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아예 올라간 겁니다. 하지만 그 대역을 써 본 적이 없으니 특성을 모를 수밖에요. 벽 뒤에서 혹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화가 잘 될 런지. 각 나라별로 원하는 대역이 있는데 우리는 28GHz에 대해 데이터를 측정해서 모델링한 후 수학적 수식을 만든 다음, 기지국 설치나 안테나 설계에 사용합니다.” 이성욱 조합원은 지금 하는 일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5세대

5G



PyeongChang 2018



이동통신)의 구축 시범을 보이기 위한 가장 첫 단계라고 했다. 그에 의하면 현재는 미드타운, 즉 중급 규모의 마을 그리고, 오픈 스퀘어. 이 두 가지 데이터 수집을 통한 채널 모델링이 급선무다. 마을 모델링은 알펜시아 리조트를 토대로 이미 작업을 끝냈고, 오픈 스퀘어는 이날처럼 경기장 내에서 모사 작업이 진행 중이다.

“2주 전 알펜시아 리조트 내부 측정을 시작으로 위치를 바꿔며 한 지점에 3시간씩, 총 25곳을 측정합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보내면 KAIST에서 처리 분석해 결과를 본 후 미비하면 추가로 측정해야 해요.”

한 지점 당 10기가 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또, 분석이 완료된다 해도 변화무쌍한 이곳의 날씨가 걸림돌이 되어 쓰레기 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자란 데이터를 위해 다시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다시 강남에서 대도시 모델링 작업에 들어간다.

1,000배 빠른 속도, 5G의 혁명

이 작업들은 가까이는 9월초에 있을 3GPP(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기구)의 5G 기술규격을 위한 워크숍에 기고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5G 기술은 현재 표준화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통신업계는 5G의 상용화시점을 2020년으로 보고 있다. 평창에서는 세계



이성욱 조합원

관제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5G로 인해 일상생활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3G를 쓸 때는 출퇴근 시간에 전화가 잘 안되고 동영상은 꿈도 못 꿔죠. 2012년 LTE가 나온 뒤 지금은 지하철에서도 류현진의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도 더 풍부해졌고요. 마찬가지로요. 5G가 되면 일단 속도가 빨라져요. 그렇게 되면 앱 개발자들은 그걸 통해 뭔가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3G에서 LTE로 넘어올 때 사람들은 ‘지금도 충분하지 않아?’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더 넓은 속도인 5G를 얘기하죠.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겁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LTE 네트워크만으로는 미래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때문에 사용이 어려웠던 10-30GHz 대역의 초고 주파수 등 광대역 주파수 사용과 작은 커버리지를 갖는 기지국의 대규모 구축을 통해 초고속으로 무선을 전송하고 트래픽을 수용하게 된다는 얘기다.

KT가 개발한 5G의 핵심기술인 ‘밀리미터파(Millimeter Wave)’는 기존 LTE 주파수 대역보다 높은 28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해 수십배 이상까지 속도를 향상할 수 있다. 이 중 기지국 간 주파수를 묶어 데이터 품질을 높이는 ‘HetNet

적인 흐름보다 2년을 앞당겨 기술을 선보이는 만큼 그야말로 선별적이고 시범적으로 선보이게 된다. KT는 경기장과 선수촌, 미디어센터 등 트래픽 밀집지역에 5G기술을 구축할 계획인데, 경기장과 업무망, 인터넷과 WIFI 등 All-IP 기반의 대회 통신망을 제공하고 중계회선과 방송서킷장비, IPTV, CATV 등 초고화질 영상전송 방송중계망도 구축한다. 그 외 통합보완



세심하게 각도를 조절해야 하는 고가의 장비를 서빙용 카트에 싣고 이동해야 하는 일은 언제나 조심스럽다.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자리를 비울 틈도 없이 서로 번갈아 점심을 먹으며 12시간을 꼬박 작업에만 몰두하는 요즘이다.

하지만 LTE 출시 당시 현장을 누비던 때를 생각하면 이런 수고쯤은 웃을 수 있다.

“2012년 1월부터 사용되는 LTE 현장 시험을 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2G 통신 종료를 위해 LTE와 주파수 대역이 같은 중계기를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말이 많던 때였죠. 중계기 시험을 하느라 빌딩과 주점 등을 다니며 경비원들과 다투기도 하고 노숙자와 시비가 붙기도 하고, 가입자 증가 후에는 점심 때 출근해서 해가 뜰 때 퇴근하는 일을 1년 넘게 반복했어요. 기침 감기에 허리디스크, 간수치도 올라가고, 병이 한꺼번에 몰려왔었죠.” 그러나 그는 일이 ‘재미있다’고 말한다.

지난 6월 글로벌 ICT 연구기관인 인포마 텔레콤미디어(Informa Telecoms & Media)가 주관하는 ‘LTE 어워드’에서 KT는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최우수 LTE 네트워크 사업자상’을 수상했다. 9개 분야 중 5개 분야의 수상 후보에 올라 역대 LTE 어워드 사상 단일 사업자 중 최다 노미네이트도 기록했는데, 이 수상에서 이성욱 조합원의 공을 빼놓을 수 없다. 2012년에 이어 올해 출품서를 제출한 이가 바로 그이기 때문이다.

이 조합원은 다만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제대로 된 장비가 갖춰진다면, 수고하는 모든 조합원들이 보다 능률 높은 현장 진행으로 올림픽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는 아쉬움을 털어냈다. “장비에 투자하면 사람이 편하고 일할 맛도 납니다. 회사차원의 원가 절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된 장비가 준비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평창동계 올림픽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이제 남은 2년여의 기간 동안 조금만 더 애쓴다면 분명 보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황창규 회장은 지난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015 기조연설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은 KT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회”라며, “전 세계가 감탄할 정보통신기술을 뽑내는 것이야말로 국민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한 바 있다.

5G로 가능한 미래, 기가토피아의 비전을 향한 새로운 경험이 시작되는 2018년에는 전 세계의 이목이 평창으로 집중될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KT의 통신역량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CA(HetNet Carrier Aggregation)’와 재난망을 위해 꼭 필요한 ‘D2D(Device to Device)’ 기술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D2D기술은 이동통신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반경 500m 이내 사용자를 탐색해 단말 간 직접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전송속도가 빠르니 가전, 무인자동차, 로봇, 가상현실, 드론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실시간 무선 연결이 가능해져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새로운 지평’을 여는 KT의 위상

2011년 박사 경력직으로 KT에 입사한 이성욱 조합원은 현재 원 소속인 현장기술지원단 외에 융합기술원에서 5G TF로 일하고 있다.

해발 800m의 현장은 잦은 날씨 변화로 몸이 늘 고되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에도 이곳은 얼마 전까지 낮에는 12도 밤에는 9도의 기온에 불과했다.

제가 이용할 만한 휴직 제도가 있을까요?

알아두면 편리한 KT의 휴직 제도

6가지 핵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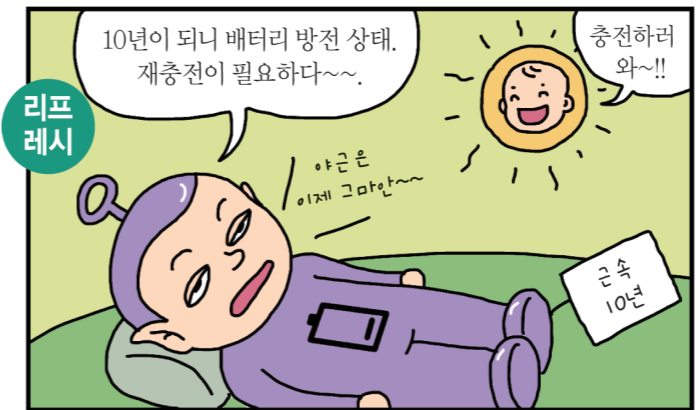
분야별로 알아보겠습니다.

6
가지

육아 휴직/ 가족돌봄 휴직/ 불임 휴직/ 리프레시 휴직/ 창업지원 휴직/ 청원 휴직



대상 : 시험관 출산 등에 시간이 필요한 불임 직원 / 기간 : 1년 이내



대상 : 재충전을 원하는 장기근속 직원 / 기간 : 근속 10년 = 6개월, 20년 = 12개월 / 급여는 기준연봉 월정액 80%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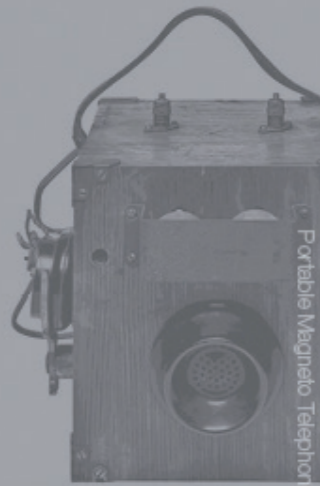
대상 : 창업을 원하는 실근속 20년 이상 직원 / 기간 : 1년 6개월 ~ 3년 6개월 / 급여는 최초 1년간 기준연봉 월정액 100% 지급



대상 : 석·박사 교육 과정이 필요한 직원(회사 업무상 유관 분야로 시장 가치가 있는 분야) / 휴직 기간은 별도로 정하며 급여는 미지급



History of KT



Portable Magneto Telephone



1910 Sound Telegraph Apparatus



First Korean Dial Telephone



1964 Paper Insulation Cable
1968 PPF Insulation AL Cable
2011 Ribbon fiber-type optical fiber cable 720 Core
Cooper Shield Weimantel metal sheath standard disk coaxial cable



1989 Component of TDX Exchange

통신 130년, KT가 GiGAtopia를 열어나간다

구한말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 한성정보총국을 세울 때 고종은 나라의 미래가 통신기술에 달려 있다는 깨달았을까. 인천~한성~의주를 잇는 조선 최초의 통신선이 개통된 이후 우리나라는 첨단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선진 IT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마치 고종의 뜻을 잇기라도 하듯 130년이 지난 지금 KT가 GiGAtopia를 통해 전세계 IT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반세기 우리나라 통신의 상징, 공중전화

10여 전만해도 길거리엔 지금은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경이 펼쳐졌다.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한 대의 공중전화부스에 서너 명씩 줄을 지어 자기 차례가 오길 기다렸던 그 모습. ‘짜깁깁’ 마음속 시계가 3분을 넘으면 수화기를 붙들고 수다 삼매경에 빠진 아가씨에게 얼른 통화를 끝내라며 무언의 눈치를 주던 그때 그 모습은 당대를 살아온 이들에게 추억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한창 주가를 올리던 공중전화도 휴대폰에게 그 인기를 넘겨주고 만다. 무려 반세기 동안이나 우리나라 통신역사의 커다란 상징이나 다름없던 공중전화는 지하철에 몇 대만의 비상용 단말기를 남겨둔 채 박물관 속으로 퇴장하기에 이른다. 광화문 KT 사옥에 꾸며진 통신박물관에는 전화카드와 터미널을 사용하는 최근의 공중전화를 비롯해 발전기 핸들을 돌려 교환원을 통해 전화가 연결되는 영화에서나 보았을 법한 전화기가 전시되어 방문자들로 하여금 130년 KT의 역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신기에서 시작된 IT 기술 혁명

전시관에 펼쳐진 KT의 역사는 1885년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맺은 조청전선조약(朝淸電線條約)에서 시작된다. 조선은 청나라의 자본과 기술을 빌어 인천~한성~의주를 잇는 통신의 운

KT trade union

24
25



국내 최초 다이얼식 전화기



무선 전화기

영을 위해 한성정보총국을 개설하고 마침내 1902년 조선 최초의 음성통화 시대를 연다. 하지만 한국전쟁의 발발로 대부분의 통신 인프라가 파괴되면서 1960년대 옥외 무인공중전화를 시작으로 통신 인프라를 다시금 꽃피우기 시작한다. 1969년 우리나라 전화 가입자 수는 5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통신 수요가 폭증하고 있었다. 하지만 집전화 보급률이 여전히 10%를 넘지 못했으므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중전화를 이용해야만 했다. 1970년대 당시 공중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선 통화시간을 3분 이내로 엄격하게 준수해야 했으니 당시 국민들의 폭발적인 통신수요를 짐작할 수 있다. 1980년대 들어 통신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집전화의 급속한 보급이다. 집집마다 전화가 개설되더니 1987년에는 1,000만 회선을 돌파하면서 ‘1가구 1전화’라는 본격적인 통신대중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통신 대중화와 더불어 1980년대의 가장 큰 사건은 통신기술의 진보를 들 수 있다. KT의 전신인 한국전기통신공사는 당시 외산 전자교환기에 전적으로 의존해 통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폭증하는 통신수요를 감당하고 우리나라가 통신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순수 국산기술을 통한 전자교환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1986년 드디어 한국

산 전자교환기인 TDX-1이 개발되기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바로 우리나라가 IT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순수 국산기술 토대를 이룬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한다.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유선 통신에 이어 1990년대에는 개인 이동통신시대가 활짝 꽃을 피운다. 담뱃갑 크기의 무선호출기, 소위 ‘삐삐’는 허리춤에 차거나 가방 속에 쏙 넣고 다니며 무선이동통신의 일대 혁신을 가져온다. 삐삐와 함께 WCDMA 기술을 통한 무선 핸드폰 시대의 개막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IT선진국으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KT 계열의 무선통신사업자인 KTF는 2001년 CDMA기반 무선 인터넷 상용서비스를 시작으로, 2002년 5월 세계 최초로 멀티미디어 데이터 송수신이 자유로운 새로운 개념의 초고속 멀티미디어 이동통신 서비스 fimm을 출시하며 우리나라 데이터 통신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

KT가 구현할 첨단 통신의 미래

그렇다면 현재 KT가 이끌어가는 무선이동통신의 현주소는 어떤가. KT는 2009년 KT-KTF와 합병을 통해 지금과 같은 유무선 컨버전스 기업으로 거듭났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이폰을 도입해 스마트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혁명을 앞당기는 선구자 역할을 한다. 4세대 데이터 통신 기술인 LTE가 대중화되면서 KT는 현재 GIGA 인터넷 출시를 통해 다시 한 번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최대속도 867Mbps로 100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olleh GIGA WiFi home은 집안 어디서나 데이터가 끊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한말 전신기에서부터 시작한 우리나라의 통신기술은 130년의 역사를 거치며 모두의 주머니 속에 담긴 작은 스마트폰으로 진화했다. 통신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기술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하나 되어 기술과 문화를 닦아온 결과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고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성정보총국을 계승하는 KT의 정신과 지금까지의 성과가 GiGAtopia를 통해 우리 생활에서 새롭게 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운플랜 상조서비스 이용후기

죽음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통과 의례다. 어느 소설가의 말처럼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속도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다. 사람들은 간혹 나 아닌 타인의 삶을 아주 쉽고 단순하게 대상화하지만 어떤 이의 삶도 짧은 몇 마디의 말로 추론될 수 없다. 한 인간의 죽음을 대하는 예법, 즉 '장례'는 복잡다단한 생의 마지막 관문을 치른다는 점에서 그 어느 의례보다 정중하고 경건해야 한다.

다운플랜이 상조서비스의 고정관념을 깨주었습니다

손영호 조합원(노원지부 강북지점 cs컨설팅팀)

손영호 조합원의 부친이 별세한 시각은 새벽 3시. 먹먹함에 경황도 없이 어떻게 상례를 치러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가입해 있던 다운플랜 콜센터에 전화를 넣긴 했지만 평소 상조 서비스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기에 별 기대는 없었다.

“저와 가족에게는 엄청난 슬픔이지만, 남에게는 무수히 일어나는 애사 중 하나지 않겠습니까. 특히 상조회사는 전문적인 대

신 뵈기 기계적일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추가바가지 요금도 걱정이 되었고요. 하지만 매 순간 얼마나 마음을 써주시는지, 결과적으로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시의 대부분이 잠들어 있을 시간인 새벽 3시. 콜센터의 연락을 받은 현지혜 장례지도사가 영안실에 도착한 것은 채 두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였다. 다운플랜의 kt임직원 담당인 현지혜 장례지도사는 먼저 유가족에게 예를 갖춘 뒤, 장례용품 체크에서부터 입관식 예약에 이르기까지 하나 하나 챙기기 시작했다. 얼마나 꼼꼼한지, 조의함의 위치까지 알려주는 등 유가족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체크해 주었다.

손 조합원은 3박 4일간 현 장례지도사와 상례를 치르며, 꼭 지인의 마지막을 대하는 것처럼 진심을 다해 상의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돌아가신 분의 수의를 정하는데 처음엔 고민을 좀 했습니다. 비록 망자가 되셨지만 자식 된 도리로 제일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장례지도사님께서 화장할 경우와 혹시 나중에 이장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시곤, 그럴 경우 고가의 제품이 큰 의미가 없다는 조언을 조심스레 해주시더군요. 어떻게든 비싸고 추가요금이 들어가는 것을 권유하는 상조회사도 많다고 들었는데, 다운플랜은 돈 보다 고객의 아픔을 성심으로 추스려 준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손 조합원은 고객만족이니 서비스의 질 향상이니 하는 비즈니스적 마인드 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소중한 이의 마지막을 유가족의 곁에서 함께 마무리 해준다는 숭고한 인식이라고 강조한다. 더불어 지면을 빌어 현 장례지도사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힘주어 말했다.



가족의 마음으로 상례를 준비합니다.

현지혜 (KT임직원 전담 장례지도사)

국내 등록된 상조업체는 가입자 수만 400만 명에 달할 만큼 시장이 매년 커지고 있는 반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대부분이 영세업체들이라 부도나 폐업 후 다른 상조업체로 인수되면서 납부한 돈을 떼이거나 중도해지 시 쥐꼬리 해약 환급금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장례뿐 아니라 결혼까지, 고객의 희로애락을 함께한다는 의미 이전에 다운플랜 상조서비스의 최대 강점은 바로 안정성이다. 상당수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로 난립하면서 부실 운영 문제가 발생하지만 다운플랜이 탄탄한 것은 고객납입금의 100%를 은행에 적립하기 때문이다. 재정적으로 안정되니 상조상품의 구성이 가격 대비, 타사(他社) 대비 월등할 수밖에 없다. 현지혜

장례지도사가 오롯이 유가족 입장에서 장례를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안정적인 구조가 뒷받침되어서다.

현 장례지도사의 365일은 늘 대기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 콜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시간에 관계없이 출동한다. 당연히 출퇴근 시간은 따로 없다. 망자가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별세하면 영안실 이송부터 유가족 상복 챙기기, 종교 파악하기, 날짜별 일정 알려 드리기, 고인의 매장 방식 상담하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심지어 특이한 안장 방식, 일례로 국립 현충원에 안장되고 싶어하는 고인과 유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 및 심사처리 절차까지 신경 써야 한다. 안장이 끝나고 유가족 중 남은 한 명 없이 모두 차를 타고 돌아간 후에야 비로소 퇴근시간이 된다.

“사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만 영위할 수 있는 직업임엔 틀림없습니다. 일하는 날짜, 시간, 장소 등 불규칙함의 연속이지요. 특히 노환이 아닌 사고사를 대할 땐 마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유가족께도 매우 조심스럽고요. 그래도 이 일에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현 장례지도사는 누구든 돈도 직장도 결국 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 일을 하면서 매번 절감하게 된다고 한다. 정말로 남은 것은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 받았던 기억뿐이라는 것. 그래서 더더욱 사랑하는 이를 보내는 유가족의 입장에서 장례를 한층 격조 높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유한성의 불안감, 경쟁심과 소유욕에서 한발 떨어져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완성시키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삶의 시작과 달리 마지막을 채우고 매듭짓는 방법은 빈자와 부자, 노소와 성별을 떠나 존중 받아야 한다. 현지혜 지도사는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도 고인의 마지막을 정성스레 마무리하고 있다.



우리 '화성송신소'로 캠핑 갈까?

강북네트워크운용본부 서울동부유선운용센터 화성송신소 'olleh 오토캠핑장'

송신소 내에 캠핑장이 있다. 그것도 KT조합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KT가족들을 위한 힐링의 장소다.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여유를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캠핑은 언제나 대세. 그러나 터질 듯 차에 장비를 싣고 끄덕대며 장소를 찾아가야 하는 고충은 시작부터가 스트레스다. 텐트와 냉장고, 전기시설은 기본. 영화까지 상영해주는 olleh 캠핑장이라면 이런 고민은 끝. 준비할 것은 가벼운 몸과 마음뿐이다.

조합원들의 땀으로 일군 캠핑장

KT화성송신소 내 olleh 오토캠핑장이 처음 문을 연 건 2011년 여름이다. 지난 4년 간 해마다 4개월씩 운영해 지금까지 약 6,000명이 이용했다. 한번 찾으면 다시 올 만큼 이곳이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KT 조합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수도권권의 인기 여행지인 제부도에서 불과 5km, 남시와 수산시장이 인기인 궁평항과 전곡항과도 10km 남짓의 거리로 주변관광까지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점이다. 강북네트워크운용본부에서 운영 관리하는 캠핑장 시설은 모두

소속 조합원들이 땀흘려가며 구축했다. 송신소 내 캠핑에 적당한 장소를 결정한 후 손수 만든 데크를 놓고 파쇄석을 깔아 개인 텐트 자리를 마련했다.

총 10여 동의 텐트가 넉넉하게 들어설 수 있는 규모인데 개인 텐트 장소를 제외한 7개의 데크 위에는 3~4인용 텐트가 구비되어 있다. 샤워장과 화장실은 물론 야외테이블과 개수대, 바비큐그릴, 예쁜 벽화가 그려진 보물창고 안에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냉장고와 매트, 전기선도 구비되어 있다. 이 모든 시설을 사용하는 이용료는 하루 만원. 쓰레기봉투와 살충제 등을 제공해주는 금액이다. 자랑거리도 있다. 배드민턴장과 족구장은 워크숍 등 단체들이 특히 좋아하고, 송신소 내 olleh 돌레길을 걷다보면 제부도의 멋진 낙조가 펼쳐진다. 자연학습장인 닭과 토끼장, 정보통신 역사의 일단을 엿보고 영화상영까지 할 수 있는 정보통신체험학습관은 덤이다.

올해는 시설을 확충하고 보수에도 힘썼다. 10여대 규모의 전용 전용주차장을 새로 만들고 낡은 텐트교체와 방충그물, 소화기



진상구 조합원

와 방화수를 비치해 안전에도 만전을 기했다. 161,729㎡의 규모로 화성송신소는 연근해와 오대양을 향해하는 모든 선박에게 무선전신 및 무선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난 및 긴급, 비상통신을 24시간 운영하는 곳이다. 단파 송신기 50대 외에, LP와 더블렛 안테나 45기와 태양광 발전 1식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어디에도 없는 대형 안테나를 또한 캠핑장 볼거리 중 하나다.

캠핑의 매력이 KT의 자부심으로

2000년부터 이곳에서 근무한 진상구 조합원은 캠핑장 관리가 또 다른 업무가 된 셈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감사인사를 건네고 재방문을 해 줄 때면 큰 보람을 느낀다. 언젠가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초청한 적이 있는데 이후, 직접 그린 감사편지를 보내온 일은 가슴 뭉클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다만 캠핑장 입소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이들 때문에 간혹 애를 먹을 때가 있다.

“재활용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봉투에 같이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직원들이 일일이 분리작업을 다시 해야 합니다. 꼭 캠핑장 이용 수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이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는 그는 “보다 편안하게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텐트 옆에서 휴식을 취하던 강북지방본부 광진지부 영업기획팀 백승우 조합원 가족은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라고 했다.

많은 장비를 갖추는 것이 꺼려져 설비가 갖추어진 카라반 캠핑

이나 글램핑을 선호한다는 그는 저렴한 가격에 거리도 가깝고 준비할 것도 없는 이곳이 더없이 만족스럽다.

“첫 캠핑의 매력을 이곳에서 느꼈어요. 쾅쾅대며 번개탄 피우는 것도 처음 해 봤죠. 여기는 부담이 없어요. 냉장고와 텐트, 샤워시설도 있고 바다도 가까워서 여름에는 더 좋아요. 첫 캠핑 때는 침낭을 안 가져왔었는데 흔쾌히 빌려주셨어요. 11살 된 아들도 아빠 회사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아이들이 전화 시설의 발달을 볼 수 있는 체험관도 있고요. 여러모로 캠핑장 보는 눈이 높아져 버렸네요.”

부부가 직장생활로 바쁘다보니 마음만큼 가족이 함께 하지 못해 늘 아쉬웠단다. 그래서 이날의 캠핑은 더할 나위 없는 자유 시간이고, 아이에게는 사소한 폴벌레의 날갯짓마저 엄마 아빠와 함께하니 소중한 추억이 된다.

“olleh캠핑장은 KT라는 동질감 때문에 모르는 옆 텐트와도 쉽게 인사하게 됩니다. 필요한 도움도 주고 음식도 나누면서 어느새 서로 친해지는 것도 즐거워요.”

백 조합원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용 캠핑장이 아닌 근무지라서 미비한 점도 있겠지만 외부와 차별화되고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KT만의 든든한 휴식공간이라는 점이 발길을 이끌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조합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보다 즐거운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되는 olleh 오토캠핑장. 조금은 특별한 그곳에서 보낸 이 시간은 분명 어제보다 나은 내일의 활력소가 되어 줄 것이다.

캠핑장 주소: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101-4 KT 화성송신소
예약문의: 강북지방본부 강재구 jaegoo.kang@kt.com (사전 예약제)
운영기간: 현재 ~ 10월 31일(연중무휴) /
입소는 13시, 퇴소는 익일 11시.

이용료: 1일 만원.



백승우 조합원 가족



플라로이드, 새로운 카메라 혁신을 이루다 찍은 자리에서 그대로 인화하는 카메라의 ‘마법’



일상의 한 장면을 그대로 담아내는 카메라 역사는 170여년이 넘는다. 오랜 카메라 역사에서 플라로이드는 한 획을 그을 정도로 혁신적 제품이었다. 최초의 즉석카메라로 찍은 자리에서 사진을 그대로 뽑아내니 초기에는 마법과도 같았다. 21세기 들어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경쟁에서 뒤처지며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지만... 하지만 플라로이드의 즉석 인화 사진 한 장, 한 장의 추억은 여전히 남아 울고 웃게 만들기도 한다. ‘추억’만을 남긴 플라로이드 카메라의 발자취를 따라가본다.

카메라의 한 종류인 플라로이드는 필름 인화를 바로 할 수 없던 카메라의 문제점을 개선해 사진 문화를 바꿨다. 기존의 카메라가 기록 위주라면 플라로이드는 즉석에서 찍고, 사진을 그대로 볼 수 있게 했다. 관광지에서 사진사가 찍어주는 즉석 사진을 그 자리에서 받기도 했고, 연인이나 가족들의 추억 사진으로 집안에 걸어놓기도 했다. 요즘 일부 음식점에 가면 즉석 사진을 찍어 가게 한 칸에 손님들의 추억을 걸어놓은 모습이 눈에 띄기도 한다. 이제 사진 찍고 인화지를 흔들며 말리던 모습을 보긴 어려워졌지만 아직 플라로이드의 명맥이 끊어졌다고 단정하기엔 이르다. 여전히 새로운 형태로 기술을 접목하며 현재에도 역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혁신의 아이콘에서 디지털 카메라에 뒤처지다

플라로이드 카메라의 역사는 플라로이드라는 회사와 맥락을 같이한다. 플라로이드는 1932년 발명가이자 물리학자였던 에드윈 H. 랜드(Edwin H.Land)와 조지 휠라이트(George Wheelwright)가 세운 랜드-휠라이트연구소(Land-Wheelwright Laboratories)에서부터 비롯됐다. 연구소에서 편광학 연구에 몰두한 랜드는 1937년 광학기기 제조업체인 플라로이드 회사를 설립한다. 이후 1948년 세계 최초로 즉석카메라를 출시했다. 이는 2008년 디지털광학기기로 사업 전환을 할 때까지 60여년 간 회사의 간판 상품이 된다.

플라로이드의 탄생에는 랜드의 3살짜리 딸의 불평이 한몫했다고 전해진다. ‘카메라로 찍고 바로 인화할 수는 없느냐’는 딸의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즉석카메라를 만들

었다고 한다. 물론 딸의 한마디만으로 개발하진 않았겠지만 말이다.

플라로이드는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첫 번째 카메라인 ‘모델 95’는 1948년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매진됐다. 촬영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이 나오니 기존 카메라보다 확실히 경쟁력이 높았다. 1950년에는 컬러인화지와 필름을 생산하고, 1951년 방사선 사진 촬영을 위한 X선 필름도 출시했다. 1964년에는 세계 최초로 전자 셔터식 AE카메라 플라로이드 ‘오토매틱100’을 내놓는다.

플라로이드는 초기에 선풍적 인기를 끌었지만 몇 가지 단점이 있었다. 인화 과정이 길고, 크기도 너무 커서 휴대가 불편하고, 원하는 구도의 사진을 얻기도 어려웠다. 이런 문제를 해소한 것이 1972년 출시한 플라로이드의 ‘SX-70’다. SX-70은 조작성 간단한 전동식으로 오늘날 모든 즉석카메라가 사용하고 있는 화학 반응형 인화방식을 최초로 구현했다. 간단히 말해, 사진이 찍히면 인화지가 카메라에서 자동으로 나와 동시에 인화되는 방식이다. 이후 플라로이드는 승승장구하며 혁신의 상징으로 불렸다.

이 시기에 여러 카메라 회사에서도 플라로이드식 카메라와 필름을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분쟁도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1986년 플라로이드와 코닥 사이의 특허권 분쟁이다. 여기서 플라로이드가 승리하면서 코닥은 즉석카메라 사업을 접었다. 플라로이드가 당시에는 혁신적이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단점도 안고 있었다. 사진기 자체는 싸지만, 필름이 비싸 유지비가 많이 들었다. 또 한 장의 사진만 인화되니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소유하기 위해 다툼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한 제품이 나왔으니 바로 디지털 카메라다.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카메라는 특히 소송에서 플라로이드에게 패한 코닥이 발명했다. 디지털 카메라는 1990년대 이후 필름카메라와 즉석카메라 업체들을 모두 도산시키며 카메라 시장을 장악한다. 그리고 한 때 사진 문화를 바꿔 놓았던 플라로이드는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2007년 이후부터 카메라 생산과 즉석 필름 판매를 점차 중단하기에 이른다. 사실상 플라로이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게 됐다.

플라로이드, 종말(?) 혹은 새로운 시작(?)

플라로이드는 2011년까지 잠정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며 단종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소량의 즉석카메라와 필름을 생산하

기도 하지만 생산량이나 수요가 적어 판매는 미미하다. 디지털 카메라에 비해 편리성이 현격히 떨어지니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제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질 때가 됐다고 여겨졌지만, 플라로이드 카메라는 여전히 수요가 유지되는 중이다. 특히 전기나 디지털 카메라를 모르는 나라들로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인다. 미개발 지역에서는 플라로이드로 즉석 인화한 사진 몇 장이 마을의 소중한 기록으로 남기도 한다. 또 일부 플라로이드 매니아층도 남아있어 수요가 꾸준한 편이다.

국내에서는 2013년 플라로이드 코리아가 디지털 플라로이드 카메라를 새로 출시하는 등 디지털 기술과 접목시켜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사진을 즉석 출력하는 용도로 인화지를 개발해 출시하는 신규 회사도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에 플라로이드 효과를 적용하고 다양한 꾸미기 기능을 제공하는 앱도 개발됐다.

사진 공유 프로그램인 ‘인스타그램’도 플라로이드 카메라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자인을 고안한 ‘소셜매틱’과 플라로이드가 함께 손을 잡았다. 인스타그램의 플라로이드 카메라에는 실제 렌즈와 터치스크린, 프린터 등이 탑재된다. 즉석 인화뿐 아니라 촬영한 사진을 SNS나 이메일 등으로 업로드까지 할 수 있다.

이같은 다양한 기술 접목이나 매니아층으로 인해 플라로이드의 명맥이 이어가긴 하지만 여전히 생존은 불투명하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바로 옆에 쉽게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디지털 기기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니 말이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시간 빈곤자를 위한 타임푸어 솔루션

모두들 '시간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산다. 시간에 쫓겨 정신 없이 바쁘다가도 정작 여유 시간이 생기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곤란해 하기도 한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재산이다. 그런데 우리는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심한 경향을 보인다.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도 정작 시간을 다루는데에는 서툴다. 언제나 시간 부족에 시달리고 늘 바쁘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지를 점검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해 얼마의 시간을 사용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시간 부자'로 사는 첫걸음이다.

시간의 주인이 된 사람들

[Case 1] 인생 시계를 발걸음에 맞춘 부부

배용연·오빛나씨 부부는 2년 간 세계 일주를 떠났다. 여행을 떠나기 전 남편 배용연씨는 소프트웨어 회사 7년 차 대리, 아내 오빛나씨는 대기업에서 5년 차 대리로 근무하며 누구보다 바쁜 일상을 살았다. 오전 9시에 출근해 빠르면 밤 11시, 평균 새벽 1시가 되어야 퇴근하곤 했다.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고 연차도 쓰기 힘들었다. 여름 휴가는 주말을 포함해 사나흘 정도가 고작이었다. 때

문에 직장 생활 7년 만에 번아웃 상태에 빠졌다. 그동안 얻은 것이라곤 지친 몸과 마음뿐이었다. 결국 기계처럼 돌아가던 시간을 오로지 자기 자신의 템포에 맞추기로 결심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동을 거쳐 북아프리카에 머무는 동안 1년이 지났다. 그다음 3개월간 스페인에서 지내며 어학연수를 했다. 다음 목적지인 중남미 코스에 대비한 것이었다. 언어가 통하니 여행의 질도 달라졌다.

두 사람은 현재 세계 일주를 마치고 네덜란드에 정착해 살고 있다. 남편 배용연씨가 그곳의 회사에 취업했기 때문이다. 전과 비교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우선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한다. 2년 전 세계일주를 떠나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건강을 잃고 부부 사이도 지금처럼 좋지는 않았을 거라고, 2년의 여행 기간 동안 수많은 문제 상황에 직면했고 그것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다. 무엇보다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삶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회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찾아온다.

[Case 2] 퇴근 후 새로운 삶을 사는 직장인

우리나라는 전국 각지에 수많은 아마추어 극단이 있다. 직장인 극단만도 60여 개에 이른다. 이곳에는 의사, 변호사, 교사, 세일즈맨, IT개발자, 금융인 등 직업, 나이, 성별도 제각각인 이들이 연극을 향한 열정 하나로 모여있다. 매주 연습에 참여하기 위해 퇴근 후 연습실로 달려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극단을 찾는 데는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성취감도 맛본다. 업무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한다. 연극은 인간을 탐구하는 작업이다. 직장 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관계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연극 역시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퇴근 후 무력감에 빠지기 쉬운 직장인들에게 큰 활력이 된다. 자기만의 고유한 취미 활동을 통해 자기 계발의 기회도 갖게 되니 이보다 더한 만족감도 없다.

시작이 어려울 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시간에 쫓겨 길을 잃은 직장인이자면 누구나 환영한다고, 첫 걸음을 떼기가 어려울 뿐, 그 이후에는 새로운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각 극단에서는 수시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정기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해마다 근로복지공단이 주최하는 근로자연극제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일 수도 있다.

[Case 3] 월요일 오전 2.5 시간의 자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일을 많이 하고 통근 시간은 가장 길다. 수면시간은 최저수준이다. 야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다.

야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른바 '굿컴퍼니'가 생겨나면서 새로운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분위기가 싹트고 있다. 배달 전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배달의 민족'을 제작한 우아한형제들 역시 '굿컴퍼니 무브먼트'의 일환으로 자율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4.5일제'라는 시스템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 시간을 직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월요일 오전을 쉬도록 해 '월요병'을 차단하겠다는 것. 회사 업무 특성상 야근이 잦은데, 당장 야근을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능률이 떨어지는 월요일 오전을 개인에게 넘겨준 것이다. 출근부터 점심시간 전까지 고작 2.5시간의 여유가 생긴 것뿐이지만 삶은 몇 배로 더 여유로워졌다.

4.5일제는 아주 작은 변화지만 직장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이는 업무 성과로 이어졌다. 업무 시간이 짧아지니 오히려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업무 집중도가 높아져 자연스럽게 업무 효율도 올라갔다. 4.5일제 시행 전보다 야근 횟수가 줄어든 것 또한 긍정적 효과다.



Voices of Readers

고 객 의 소 리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새희망의 '길']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새희망의 '길']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mabin@kt.com)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대구유선운용센터 신병구
따끈한 정보와 함께 다양한 삶의 정보가 묻어 나는 소식지 '길' 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도전 60일' 이 인상에 많이 남습니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응원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성공을 꼭 이루시길, 파이팅!

수도권서부고객본부 안관연
안녕하세요. '길'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퀴즈 부분에 일반퀴즈가 아닌 낱말 퀴즈를 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낱말은 해당호에 있는 내용이거나 ICT 관련 용어 또는 상식으로 구성되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추첨을 통해 기프티쇼를 지급하면 참여도가 올라갈 것 같네요.

융합기술원 인프라연구소 전현수
기획특집기사 '글로벌 IoT시장을 향해 KT가 뛰어간다' 기사를 잘 보았습니다. 사내 현황을 알기 쉽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전국 근무지 주변의 맛집이나 명소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IT기획실 플랫폼개발단 김상열
제가 주로 보는 것은 KTTU 뉴스와 카툰입니다. 뉴스는 일하면서 모르면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 무척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성과급 관련, 금연관련 뉴스가 참 좋았습니다. 또 KT에 일하면서도 막상 몰랐던 다양한 복지를 알 수 있었던 카툰도 좋아합니다. 체육행사비, 반차일수 등 좋은 정보가 담겨 있어 유익했습니다. 매번 좋은 소식지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유선운용센터 김중수
KT 감성복지와 함께 성장하는 일터 만들기를 만화로 표현하

여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또 보기도 좋고요, 항상 건승하시고 만화로 많이 알려주세요.

충남유선운용센터 박상욱
이번 소식지에서 오지섬 백령도에 첨단 I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한 세상을 구축한 KT의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기업IP컨설팅센터 손대권
여러 지부의 소식과 조합원들이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평택지부 이승찬
'길'을 통해 조합원의 일상생활과 조합 간부의 움직임을 잘 표현해주어 감사합니다. 조합원의 작은 생각도 잘 기재되어 풀어준 것도 고맙구요. 앞으로도 세심한 직원들의 생각을 잘 표현해 주세요.

익산지부 오원동
바쁜 일상으로 인해 놓치고 있던 회사 소식들을 쉽고, 유익하게 정리하여 전달해주신 노동조합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지부 이지애
안녕하세요. 특히 이번호에는 다양한 조합원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어 좋았습니다. 도전하는 조합원, 첨단 IT기술 집적된 스마트 섬을 만들가는 조합원, 그리고 기업IP컨설팅센터지부 등. 앞으로도 많은 조합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KTTU QUIZ

2011년부터 KT를 중심으로 11개 기업 노사가 노사문화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노사협의체 명칭은? (8페이지 참고)

정답 보내주실 곳 : mabin@kt.com(김민수 편집국장)

※ 보내주실 때 반드시 이름/소속/연락처/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상품권이 배송됩니다.

ANSWER

정답과 함께 소식지 '길'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WED
may, 27 2015

NEWS

No 34747/53

직장인 김모씨(46)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이 가입한 A상조업체가 폐업하고 B업체로 인수된다는 소식을 들은 것. 지난 5년간 60여회에 걸쳐 200만원을 납입해 온 김씨는 애타는 마음에 A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A업체는 “회사가 B상조업체에 인수됐으니 B업체로 문의 하라고 했다” 그런데 B업체에선 “A업체로부터 회원정보는 넘어왔지만 그간 A업체에 납입한 돈에 대해선 책임을 질 수 없다. 앞으로 새로 납입하는 돈에 대해서만 상조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어이없는 답이 돌아왔다. 더 문제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전체 낸 돈의 20%에도 못 미친다는 것.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고자 했지만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에 고객 납입금으로 신고·예치한 돈이 4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 고객 피해보상에 대비해 상조업체는 가입자가 낸 돈의 절반을 공제조합에 적립해 뒀야 하지만 A업체가 회원수와 납입금을 축소해서 신고해 온 것이다. 김씨는 “상조업체가 갑자기 망했다고 하는데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중간기사 생략

문제는 부실상조업체들의 난립이다. 상조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니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 기반의 상조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2004년 98개였던 상조업체 수는 지난 2009년 317개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매년 10~20개씩 감소해 지난해 9월 말에는 228개까지 줄었다. 올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8개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돼 문을 닫았다.

… 중간기사 생략

국내 상조시장 감사를 담당하는 봉원오 공정위 조사관은 “2010년 상조업체들에 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법 규정이 생긴 후 지난 5년여 동안 총 90여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특히 올 1분기에만 8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는 건 꽤 큰 숫자다. 8개 업체 중 2곳은 자진 폐업했지만 나머지 6곳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고객 납입금 중 50%를 예치해야 하는 등 상조업 관련 규정을 어겨 강제로 계약해지 당하고 등록이 취소된 사례다. 이 중에는 강원도 지역에서 상조로 처음 등록한 AS 상조등 규모가 꽤 큰 업체도 포함돼 있다”며 한마디로 상조업체 사기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 1809호 (2015.05.27~06.02일자)기사입니다>

(주)다운플랜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 부실상조 업체는 고객납입금(회비)을 훼손하여 부실이 발생하였기에 (주)다운플랜은 고객납입금(회비)을 100% 은행에 적립하고 있으며, 선불식할부거래법을 준용하여 고객납입금의 50%는 정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 (주)다운플랜 회원은 상조 또는 웨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회원님의 서비스 만족을 위하여 본사에서 직접 전국을 통제·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다운플랜은 전국 다수의 장례식장과 웨딩홀을 계약하여 회원님께 시설 사용료를 할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신청 | 1577-1555 www.daonplan.com



(주)다운플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kt본사 2층 (주)다운플랜
TEL. 1577-1555, 031-727-4803~4 FAX. 031-727-4809